“광주서 DMZ 가자” 통일열차 인기

남구, 효천~도라산역 ‘효도열차’ 올 첫 시행…접수 7분만에 마감

저렴한 가격·다양한 행사에 타지서도 신청 “내년 횟수 늘리기로”

광주시 남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남북통일열차가 접수를 시작한지 수분만에 마감됐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이 높다는 것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다음달 21일 ‘효천역’에서 ‘도라산역’까지 412.3㎞거리를 왕복하는 ‘효도열차’가 접수 첫 날 7분만에 종료됐다.

광주시 남구 ‘효천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까지 간다는 의미로 이름지어진 효도열차는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3일간 선착순 30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접수 첫날 모든 좌석의 표가 동이 나 버린 것이다.

이번 남북열차는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민들에게 분단 현실을 인식시키고 평화와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 2019년 광산구에서 추진해 인기를 끌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돼 통일 걷기대회로 변경된 것을 남구가 올해 다시 시작한 것이다.

남구는 “조기마감에 대해 지역민의 인기를 실감했다” 면서 30일까지 입금이 안돼 취소되는 표가 생길 시 재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인기에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그동안 야외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과 통일열차가 이 지역에서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을 간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또 8만 원의 접수비에는 다양한 행사, 식사까지 포함돼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남구는 당초 남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려 했으나 타 지역 거주자까지로 접수 대상을 확대하면서 조기 마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효도열차 티켓을 구매한 지역민은 다음달 21일 오전 6시 30분 효천역 광장에 모여 간단한 행사를 진행한 뒤 열차에 탑승하게 된다.

다섯 시간을 달린 열차는 이날 오후 1시께 도라산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버스로 갈아타 북한군이 남침할 때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제3 땅굴’과 우리나라의 최북단 전망대인 ‘도라전망대’ 등 DMZ 현장을 돌아보게 된다.

이번 효도열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해 무궁화호로 결정됐다. 경전선이 지나는 효천역에는 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하고 도라산역에서 임진강역으로 이동할 때 KTX 이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다섯 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이동시간에도 풍성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의 이재봉 사무처장의 분단트라우마와 남북교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 될 예정이다.

남구는 열차표 구매에 실패한 지역민들의 문의가 많아 내년에는 국방부, 통일부, 한국철도공사 측과 협의해 효도열차 시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가을정취 물씬 29일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언덕에 핑크뮬리가 만개해 가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별 경험 청소년’ 애도 상담교육 실시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대상

(재)전남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전남지역 23개 도와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및 전남 도내 상담자 60명을 대상으로 ‘사별 경험 청소년’을 위한 애도 상담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트라우마연구원 주혜선 원장이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위한 애도상담을 강의했다. 교육은 심리적 외상 후 시기별 개입 방법, 안정화 방법, 사별 주제에 따른 상담 개입 방법과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애도 상담 시 구체적 개입 방법을 실제 심리상담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양미란 원장은 “자살·자해, 학교폭력, 심리적 외상 등 청소년 문제 영역이 갈수록 가속화하고 심각해지는 시기로, 상담자의 전문 역량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상담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은 전남도가 설립한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기관으로 상담, 긴급구조,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친일 단죄비’ 4m 옮기고 끝?

광주시 ‘서정주 시비 친일 단죄문’ 지하철 역 근처로 이설

허백련 친일 오해 불식 미지수…시 “더는 옮길 계획 없다”

의재 허백련선생 동상 앞 서정주 시비 친일 단죄문 설치논란<광주일보 5월 24일자 6면>과 관련해 광주시가 문제의 시비를 이설했다. 하지만 불과 4m 옮기는 데 그쳐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광주시와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학동소공원 의재 허백련 동상 앞에 있던 친일 단죄문은 최근 4m 떨어진 지하철 역 입구 근처로 옮겨졌다.

이설 작업은 지난 8월부터 진행된 학동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발맞춰 이뤄졌다. 이 사업은 예산 2억원을 들여 의재 허백련 동상을 세척하고 조경수 전정, 도로 재포장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단죄문은 동상 앞 바닥에 새겨진 ‘의재도인 동상명’(毅齋度人 銅像銘)이라는 글귀를 서정주 시인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설치됐다. 다만 “단죄문이 의재 선생을 친일파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친일 잔재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의견을 물어 이설을 확정했다.

단죄문 이설이 오해 불식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광주시는 추후 단죄문을 옮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단죄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아직 단죄문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전문가와 논의 할 계획은 없다. 논의는 필요하면 그 때가서 할 일이다”고 말했다.

환경정비사업 초기, 동상을 옮겨 무등산을 등지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 측이 제기한 “이설 과정에서 병풍 등 조형물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현 상태로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동구 관계자는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남 불법 폐기물 아직도 ‘산더미’

5만6천톤으로 3년간 53% 줄어…광주 96.5% 처리

전남지역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는 5만6000여 t 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9만 820 t), 충남(8만 831 t)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양이다.

지난 2019년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전국에서 191만 t 의 불법폐기물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전남에선 12만 t 이 적발됐다.

이후 3년 동안 전국에서 전체의 82.6%인 157만 8000 t 의 폐기물이 처리될 동안 전남에서는 53%인 6만 3937 t 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광주에서는 전수조사 당시 2581 t 이 적발됐으나 96.5%를 처리해 현재는 89 t 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해 이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송 혹은 수사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처리가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의성 쓰레기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겪었음에도 불법폐기물 문제가 여전하다”며 “환경부가 현재 시행 중인 불법폐기물 관리 보완 대책을 넘어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고액 알바” 대포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일당

‘고액알바’로 속여 가입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일명 ‘대포폰’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전화금융사기 전담팀)는 전기통신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부터 최근 6개월 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액알바’ 글을 올린 후 연락이 온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준생들에게 1회선 당 40만~60만 원을 주고 총 80여 개 회선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하면서 각각 4500만 원과 3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 연루를 우려하는 가입자들에게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걸리지 않는다”, “혹시 걸려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안심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7월 대포폰 모집·유통책들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 B씨가 제주에서 붙잡히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B씨가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B씨가 관리·모집하고 있던 대포폰 모집책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대여해 준 가입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02, 1533 등의 번호로 문자가 수신되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은행, 카드사 등을 방문해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